"갖고 싶던 선물 받아 행복해요"

증심사, '희망 우체통' 선물 전달



저소득가정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전달이 열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광주 증심사 대원장학회(이사장 연광)는 9월 16일 광주 동구청에서 지역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희망 우체통 사랑의 선물' 전달식을 갖고, 동구 관내 아동들에게 7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다.〈사진〉

'희망 우체통'이란 지역 저소득층 아이들이 평소 갖고 싶은 선물을 신청 받아 직접 사찰에서 구입해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날 증심사는 31명의 아동에게 자전거, 미술용품, 신발, 시계 등 다양한 물품을 전달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해 복싱에 관심이 많았던 정윤동(12, 초5) 어린이는 소원 우체통에 복싱장비를 신청했다. 이날 정윤동 어린이에게는 유명상표의 복싱 신발, 장갑, 마우스피스 등이 전달됐다. 좀처럼 웃지 않는다는 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본 보호자와 주변사람들은 큰 박수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연광 스님은 "아이들이 소원하는 물건을 선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연꽃마을 자비원, 추석맞이 나눔잔치

암환자 및 독거노인 초청



행사에 앞서 수 한방병원 의료진이 어르신들의 건강검진을 돕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연꽃마을 자비원(대표 정인)이 암환자와 독거노인 100명을 초청해 나눔잔치를 열었다.

전주시 덕진구청 강당에서 열린 나눔잔치에는 정인 스님과 불심정사 법성 스님, 임현기 한국노인복지봉사회 전북지부장, 임선영 전주 수 한방병원장을 비롯해 구청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홀몸 어르신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정인 스님은 덕진구청에서 추천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허리보호대, 소염진통제, 홍삼엑기스 등 건강보조식품과 쌀, 라면, 치약 등 생활필수품 등 5,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행사에 앞서 전주 수 한방병원은 어르신 건강상담을 진행했으며 아리랑 예술단은 경로위안공연을 펼쳐 어르신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국노인복지봉사회 전주지회장도 겸직하는 정인 스님은 "명절을 맞아 부모님 모시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성모암, 효사상 담긴 무량수전 기공

2018년 11월 완공예정



대각교단 총재 석가산 스님이 친필 현판글씨를 전달하고 있다.

조선시대 고승으로 널리 알려진 진묵대사의 효심을 간직한 김제 성모암(주지 영월)이 9월 15일 무량수전 기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무량수전 기공식은 내장사 대우 스님, 석가산 스님, 백련암 진공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사부대중 2,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삼귀의, 반야심경, 법어, 축사, 격려사, 현판금 전달, 한마당 잔치 순으로 진행됐다.

대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진묵대사의 효심이 서려있는 성모암의 무량수전 기공은 진묵대사의 효사상을 기리는 매우 의미있는 불사"라며 불사의 원만 성취를 기원했다.

이어 대각교단 총재 석가산 스님은 친필 현판글씨를 전달했고, 불자노래자랑, 한마당 잔치가 열렸다. 한편 성모암 무량수전은 150㎡ 규모로 2018년 11월 완공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리산 가득 메운 佛音 향연

국립공원 50주년 맞아 화엄사, 화엄음악제 개최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 일행의 범패 무대. 사찰을 배경으로 장엄함이 느껴진다.

국내 유일의 불교영성음악회인 화엄음악제가 9월 15일부터 3일간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에서 화려하게 개최됐다.

올해 12회째를 맞은 화엄음악제는 첫날 화엄원서 열린 전야제에서 한국인 '있다'와 일본인 '마르키도'로 구성된 혼성 듀오 '텐거', 보컬리스트 정마리의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무용가 '이양희'의 주도로 분위기를 끌어올린 퍼포먼스에서는 관객과 아티스트가 함께 호흡하고 명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나눴다.

16일 본 행사인 화엄콘서트에는 33번의 타종의식과 함께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 일행의 '범패(梵唄)'가 무대 포문을 열었다. 이어 화엄음악제의 특별 프로그램인 '화엄레지던시'에 참여한 세계 8개국의 뮤지션들이 1주일 동안 화엄사에 머물면서 만든 곡을 발표하는 시간도 있었다.

이외에 색소폰 연주자 '신현필',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박은하', 거문고 산조 인간문화재 '이재화'의 공연도 눈에 띄었다. 특히 총감독 '원일'의 지휘로 합창단 어썸콰이어와 화엄오케스트라가 협연한 김민기의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각황전 가득 고래 이미지가 날아다니는 3D 매핑 퍼포먼스가 밤하늘을 수놓았다.

마지막 날인 17일은 야단법석 콘서트가 장식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기타리스트 박석주와 조동희, 장필순의 무대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기에 충분한 공연이었다. 무엇보다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아 30년 만에 국보 301호 '화엄사영산회괘불탱'의 현괘의식이 특별함을 더했다.

한편 올해 신설된 '화엄레지던시'에는 한국, 미국, 영국, 카보베르데, 불가리아, 레바논, 모로코, 일본에서 20여 명의 아티스트들이 초청됐다. 클래시컬 넥스트의 디렉터 제니퍼 다우터만과 원일 감독이 멘토로 레지던시를 이끌었으며, 장르를 넘어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각자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화엄레지던시는 이번에 참여한 각국의 뮤지션을 통해 이후에도 다양한 결과물을 양산하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스님의 청소년 봉사활동 장려

탑사 갑룡장학회 봉사장학금 1천만원



갑룡장학회 이사장 진성 스님과 장학금 수상 학생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지난 23년간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는 전북 진안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이사장 진성)가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갑룡장학회는 9월 20일 진안군 산약초타운 2층 강당에서 지역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진안군 관내 11개 읍면 자원봉사단에서 추천한 초중고 및 대학생 22명에게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진성 스님을 비롯해 광명사 주지 송운 스님,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 탑사 총무국장 정해 스님, 교무국장 해동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김용진 자원봉사센터장, 박명석 군의장, 김남기·이한기 군의원, 자원봉사 관계자, 장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진성 스님은 점심을 거르는 친구를 위해 뉴욕 지하철에서 돈을 벌고 있는 한 어린이 사례를 예로 들며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나눔을 실천한 것이고, 봉사와 나눔의 정신이 뛰어나고 올바른 사고를 가진 학생"이라며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장학생 여러분은 국가와 지역을 위해 봉사정신을 실천하는 재목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선행에 앞장서고 가장 많은 시간을 자원봉사활동에 할애해 추천됐으며, 대학생에게는 각 50만원, 초중고교생에게는 각 4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진성 스님은 장학금을 전달받은 학생들에게 저녁식사도 함께 제공했다.

수업으로 인해 대리 수상한 전병관 학생의 부친 전근수 거사는 "당연히 동참해야하는 자원봉사활동인데 장학금까지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라며 "앞으로 온 가족이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달라이라마 방한 기원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

방한추진위, 시사회 열어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촉구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가 열렸다.

달라이라마방한추진위원회는 9월 19일 광주극장에서 무료 시사회를 갖고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추진하는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진화 스님(송광사 주지), 진옥 스님(석천사 주지), 금강 스님(미황사 주지), 명신 스님(연화사 주지)을 비롯해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 등 600여 불자들이 참여, 50분간 다큐영화 '오 다람살라'를 시청하고 기념식을 진행했다.

명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아직도 한국에는 세계적인 불교지도자인 달라이라마 스님의 방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달라이라마 스님의 방한을 통해 많은 한국인들이 높은 가르침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길 기원한다"며 "달라이라마 스님의 다큐영화 상영이 스님의 방한을 추진하는데 좋은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이주민과 5대 종교 화합 기원 음악축제

마하이주민協 화순서 개최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가정 및 아시아 외국인들과 5대 종교인의 화합을 위한 어울림한마당이 열렸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상임대표 정호)는 9월 17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아시아이주민 12개국 600여 명과 조계종 사회부장 진각 스님, 국제전법단장 계성 스님, 몽산 스님(前대흥사 주지), 원일 스님(정광학원 이사장), 현장 스님(대원사 회주)을 비롯해 박지원·손금주 국회의원과 각 종교지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음악페스티벌, 호남종교인영성문화제를 개최했다.〈사진 아래〉

아시아밝음센터(대표 도제)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오전 11시 각 나라별 입장식에 이어 12개국 아시아 이주민들이 참여한 음악페스티벌이 열려 흥겨움을 더했다. 오후에는 천도교(하늘이시여), 원불교(현악 2중주), 기독교(성가대), 불교(범능 스님 추모노래) 공연 등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